

현장 기반 연구의 플랫폼, 캐나다 도시연구소

문보람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들어가며

캐나다의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와 같은 주요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매년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지역이다.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안전, 인프라 서비스, 문화, 환경, 교육과 같은 요소가 공통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반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위협요소로 도시의 높은 인구 밀도, 인구의 고령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이슈는 현재 전 세계 많은 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도시가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캐나다는 어떤 차별화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 글에서는 현장 기반 연구의 플랫폼인 캐나다 도시연구소의 비전과 목표, 주요 역할과 최근의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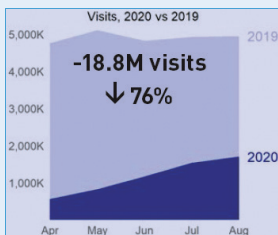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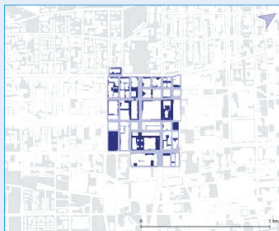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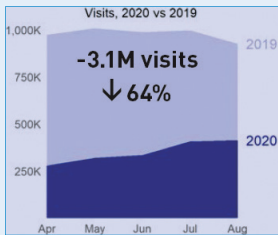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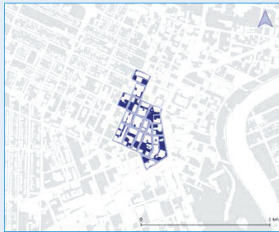
1990년에 설립된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건강한 도시 조성 및 개발을 위해 수립된 비영리 응용연구기관이다. 수행한 연구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며, '도시계획은 모두를 위해야 하고,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가치를 앞세우고 있다.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지역 주민, 정책 결정자, 도시 전문가, 공무원, 기업, 사회 활동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이는 국가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연구·참여·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캐나다가 더욱 생동감 있고 공정하며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이다.

기관의 역할 및 예산

기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연결'이다. 이는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과 포럼 등을 기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촉진'이다. 연구소는 도시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지역 주민, 정책 결정자, 도시 전문가, 공무원, 기업, 사회 활동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이는 국가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니펙시의 King Street 중심가(상)와 몬트리올시의 Saint-Catherine 중심가(하)의 2019년과 2020년 방문객 감소 추이
출처: Canadian Urban Institute(2020a, p.14)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우수 사례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통’이다. 캐나다의 다양한 도심 생활을 반영하고 견고한 정책 리더십과 민관 합작 투자, 현장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예산은 다양한 파트너로부터 펀딩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8개의 주요 재정 조달 기관은 캐나다의 비영리 지원 재단과 신용조합·투자는행 등으로 구성되며, 100개가 넘는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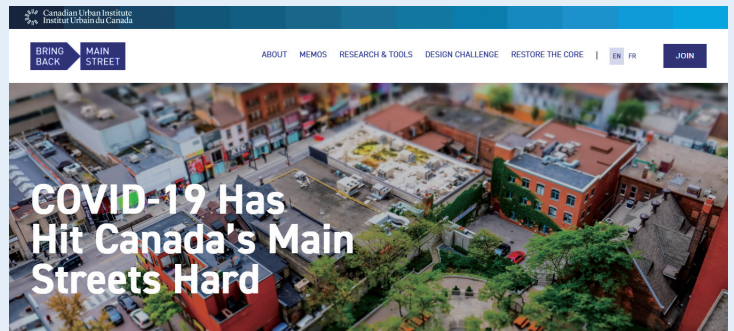
핵심 연구과제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지불 가능한 주택, 도시 경쟁력, 스마트 성장, 에너지·물 관련 솔루션, 고령친화 커뮤니티, 오염지역 정화와 같은 특정 이슈가 포함된 도시계획을 주로 연구하고 실행한다. 또한 도시계획, 도시관리, 서비스 공급, 환경관리, 지역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 도시 및 지방과 협업하는 활발한 국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글에서는 시내·중심가의 공동체 회복성 및 지속가능성, 고령친화 주거,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대표 과제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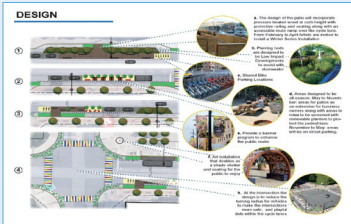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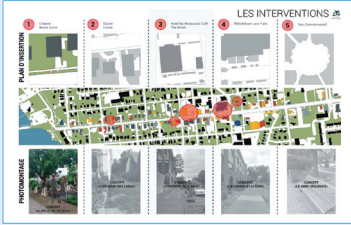
‘캐나다 중심가 되찾기(Bringing Back Canada’s Main Streets)’ 프로젝트

캐나다의 주요 중심가들은 도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에 있어서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주요 중심가들은 전례 없는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미 많은 수의 소상공인이 폐업하였고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캐나다 중심가 되찾기’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조율된 연구 및 실행 캠페인으로, 캐나다의 주요 중심가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위기로부터 더욱 회복력을 가질 수 있게끔 기획되었다.

프로젝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민들의 이동 패턴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대도시 상업지구와 소도시 중심가 등 캐나다 전역의 9개 중심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프로젝트에서 발간한 액션 리포트에서는 실행 방안을 즉각적 실행과 장기 실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중심가 되찾기’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 화면
출처: Bring Back Main Street 홈페이지. <https://bringbackmainstreet.ca/>



중심가 디자인 챌린지 플레이북의 디자인 사례
출처: Canadian Urban Institute(2020c, pp.17, 27, 29)



캐나다 주요 중심가 전경
출처: Canadian Urban Institute(2020a, pp.15, 25)



'캐나다 중심가 되찾기' 프로젝트의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툴킷(좌)과 커뮤니티를 이루는 다양한 주제(우)
출처: Canadian Urban Institute(2020,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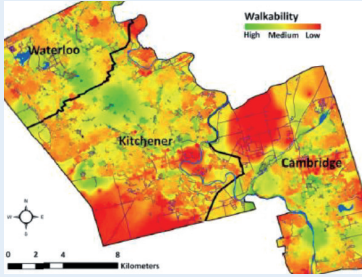
또한 중심가 상점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캐나다 왕립건축연구소(Royal Architectural Institute)와 함께 중심가 디자인 챌린지 플레이북을 발간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가, 학생, 계획가, 조경 건축가, 공간 기획자, 커뮤니티 활동가,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요 연구 보고서 및 캠페인 결과, 수집된 데이터, 행사 및 시민들의 의견을 자세하게 공유하고 있다.

고령층을 위한 도시·주택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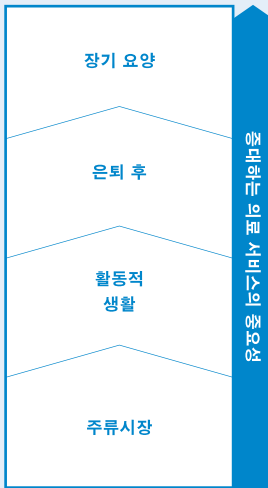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캐나다에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14년 기준 15% 이하였던 65세 이상 인구는 2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30년에는 약 2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Government of Canada, 2014).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비하여 교통, 주택, 고용, 서비스, 행정기관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캐나다 도시연구소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 워털루시 도시계획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교통 서비스 공급과 그에 따른 주택 형태 및 입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 정부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개선하고 자가용 사용 감소를 권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 노인들이 증가할 경우 이는 확대 및 개선된 대중교통 체계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Bring Back Main Street. <https://bringbackmainstreet.ca/>



워털루시의 물리적 보행환경 수준(2009년 기준)
출처: Canadian Urban Institute(2014, p.48)



고령층 대상 주택 산업 범위
출처: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2020b, p.25)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 디자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캐나다 도시연구소에서는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와의 협력을 통해 '55세 이상(over 55)'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친화 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지역 조성 방안, 모든 연령층을 위한 디자인, 지속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 다양한 형태의 거주권과 창의적 파트너십, 적응력 높은 주택 모델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설계적 측면으로 입구, 거실 및 식당, 주방, 침실, 화장실, 창고, 세탁실, 파티오 및 발코니 등 집안 전체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 거주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주택 디벨로퍼, 지자체, NGO, 디자이너, 서비스 에이전시 등 지불 가능한 고령층 대상 주택을 만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이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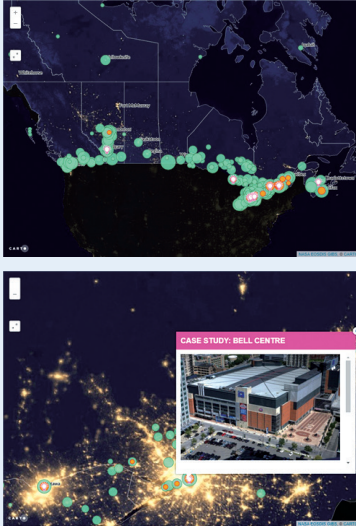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군가는 작은 주택에서의 거주를 선호하거나 혹은 활동적인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사를 원할 수도 있다. 다만 대부분의 캐나다 고령층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하길 희망한다. 이에 고령층을 위한 주택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고령층 관련 인구통계적·지리적 추이, 동향, 주택 옵션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 인구 개인별로 재정 및 건강 상황이 다르다는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고령층의 주택 수요와 기회는 퇴직자들의 시장 중심 주택부터 요양시설까지 광범위하다. 또한 공동거주(co-housing), 활동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커뮤니티, 공유자본모델 등 오늘날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혁신적 대안을 검토한다.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작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프로젝트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네트워크화된 LED 가로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추진해 왔다. 이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구성된 LSNetwork(LED Streetlights Network)는 스마트 커뮤니티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각 공공 서비스의 인프라를 연결하고자 지방정부를 돕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해 왔다.

LSNetwork는 이미 LED 가로등으로 전환이 완료되고 제어 시스템을 갖춘 캐나다 전역의 지점들을 지도화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 정보는 LED 가로등 개수, 에너지 절감비용 및 잠재적 온실가스 감소량 등이 포함되며, 2020년 1월 기준 캐나다 전역에서 최소 53%의 가로등이 LED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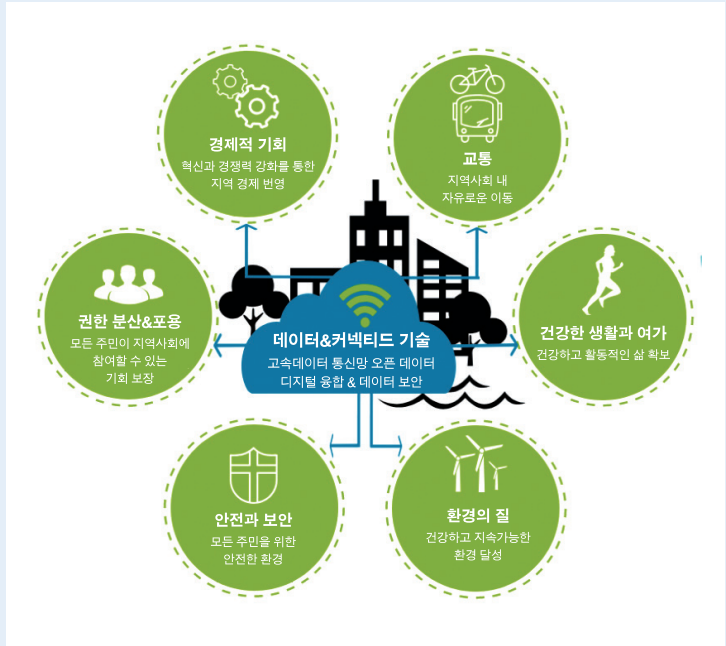
또한 LSNetwork는 일터와 가정, 여가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돕고 있다. 많은 수의 캐나다 지역사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여섯 가지 분야(경제적 기회, 권한 분산·포용, 환경의 질, 건강한 생활과 여가, 교통, 안전과 보안)를 포함하는 프레임워크를 설정한다. 과거에는 지역사회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이 민간 산업 주도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LED 가로등 전환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LED 가로등 지도

출처: LSNetwork(n.d), <http://www.lsnetwork.org/map>



스마트도시 구성요소

출처: Canadian Urban Institute(2018, p.3)

제시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시티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가이드 발간을 통해 단계별로 수립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일곱 가지(가로등, 교통과 주차, 환경 모니터링, 안전과 보안, 주요 공공서비스 인프라 연계, 신수익 창출, 시민 참여)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도시를 말하고, 보고, 공유하다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CityTalk’, ‘CityWatch’, ‘CityShare’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와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통하고 있다.* 다루는 주제는 경계가 없고 광범위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왜 도시에 중요한지, 도시 내 주택 다양성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 선거 이후의 도시 변화는 무엇일지, 홈리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도시 내 젠더 격차를 좁히기 위한 아이디어가 무엇일지, 청년들이 바라보는 도시 어젠다는 무엇인지, 도시 내 대학의 미래는 무엇일지에 관한 토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 글의 처음에 제기된 질문인 ‘도시가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캐나다라는 어떤 차별화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 있을까?’를 다시 곱씹어 본다. 도시가 가진 현재의 위기와 도전 요소, 위와 같은 다채로운 주제에 대해 캐나다 도시연구소

* CityTalk(<https://canurb.org/citytalk-canada/>)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토론 및 세미나 영상은 영상의 전체 버전뿐만 아니라 주요 결과 요약, 토론자들의 전체 발언을 속기한 스크립트, 영상에 참여한 청중의 채팅 질문까지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다.

“도시가 가진 위기와
도전 요소 등
다채로운 주제에 대해
캐나다 도시연구소는
현장에 뛰어들어
이야기를 모으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전달하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

는 현장에 뛰어들어 이야기를 모으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전달하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 캐나다 도시연구소의 이러한 시도와 접근이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참고문헌

- 1 Bring Back Main Street 홈페이지. <https://bringbackmainstreet.ca/>
- 2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2020a). Housing for Older Canadians: The Definitive Guide to the Over-55 Market – Designing the Project.
- 3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2020b). Housing for Older Canadians: The Definitive Guide to the Over-55 Market – Understanding the Market.
- 4 Canadian Urban Institute 홈페이지. <https://canurb.org/>
- 5 Canadian Urban Institute. (2014). Supporting the Big Shift with Age Friendly Development.
- 6 Canadian Urban Institute. (2017). 2017 Annual Report.
- 7 Canadian Urban Institute. (2018). Smart Planning Our Future Cities.
- 8 Canadian Urban Institute. (2020a). In it together: Bringing Back Canada's Main Streets action report.
- 9 Canadian Urban Institute. (2020b). Rapid Placemaking to Bring Back Main Street.
- 10 Canadian Urban Institute. (2020c). Main Street Design Challenge Playbook.
- 11 Canadian Urban Institute. (2020d). City Talk. <https://canurb.org/citytalk-canada/>
- 12 Government of Canada. (2014). Action for Seniors report.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seniors-action-report.html/>
- 13 LSNetwork. (n.d.). <http://www.lsnetwork.org/map>